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창원대학교 <글쓰기>를 중심으로

조춘희*

- 목 차 -

- I. 서론
- II.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과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 III.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
- IV. 개선방향 및 제언
- V. 결론

|국문초록|

대학이 자본의 논리에 편입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자본 및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의 불모화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학이 당면한 문제이다. 이는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 및 책무의 변화뿐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친다. 대학의 본질은 다양한 학문의 심화에 있다. 이를 통해서 한 개인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복무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아래 학문적 순수성은 실험대에 올랐으며, 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회의와 반성적 계기의 필요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 대학 교양교육 특히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창원대학교 <글쓰기> 강좌를 사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육은 크게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실제 운영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전자의 경우, 첫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강의 개설 및 시수 운영상의 문제, 둘째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부재 등으로 간 취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첫째 교재의 적합성 문제, 둘째 단일 강좌 개설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 끝으로 전공 및 비교과 등 대학생활 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육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국내 각 대학이 예산 문제를 떠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및 성찰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늙어 가는 사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 책정에 의해 구색만 갖춘 교양교육이 아니라 대학의 정체성 확보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 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학교육, 교양교육, 글쓰기 교육, 창원대학교, 의사소통 교육

I. 서론

대학이 자본의 논리에 편입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노골적으로’ 기업으로서의 대학을 표면화시킨 것은 다소 최근의 일이다. 대학 평가 및 국가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대학 자율화를 침해하는 양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학 내 상업시설의 유치와 같은 가시적 변화는 오히려 순진한 축에 드는 형편이다. 이러한 실정이니 자본 및 국가권력에 의한 대학의 볼모화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대학이 당면한 문제이다. 자본과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 자율화의 침해는 학과 통폐합 및 교과 과정 운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기에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뿐 아니라 그 과급 범주도 크다. 예컨대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 및 책무의 변화뿐

아니라 학내 구성원들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인문학적 가치를 탐구하는 학과를 비생산적이며 무용한 것으로 폄하하면서 당장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한 전공 서열화가 악의적 양태로 진행되고 있다. 가령 국가 주도의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¹⁾은 각 대학의 특성과 학과의 다양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의 논리로 천편 일률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무엇보다 대학 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반성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일괄적 하달, 특히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 및 학과의 존폐까지 결정하겠노라는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대학도 사회변화 및 그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측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며, 대학 및 학과의 성격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학과 학과의 차이를 무시한 국가정책은 수 년 내에 그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는 변한다. 그런데 작금의 가시적 변화 내지는 현재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춰 대학 교육을 전면 개편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어리석은 일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학의 본질이란 다양한 학문의 심화에 있다. 이를 통해서 한 개인의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복무한다. 즉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각 분야의 자질을 특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사회 전영역에 고루 인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것이야

1) 국가 주도의 프라임 사업(PRIME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과 코어 사업(CORE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 initiative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은 명목상으로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이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단기(2016~2018)적인 정책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지원금을 빌미로 대학 및 학과 정원을 임의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 인문학의 진흥에 기여하겠다는 코어 사업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제시한 비전과 실상은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학령인구의 감소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학이 새로운 모색을 마련해야 할 때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일괄적·기계적·계단式 폭력적인 구조조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조.

말로 현시대 대학에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아래 학문적 순수성은 실험대에 올랐으며, 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회의와 반성적 계기의 필요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 대학 교양교육 특히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창원대학교 <글쓰기> 강좌를 사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디지털 혁명시대, 소통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글쓰기는 더 이상 매력적인 매체가 아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견인할 수 있는 토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구성원 간의 소통은 갈등과 각종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만, 사회로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지금 대학생들이 물리적인 스펙이 아닌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본고는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강좌가 당면한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글쓰기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II.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과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본질적으로 대학 교양교육의 지향점은 제반 분야의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데 있다. 대학 교양교육은 전인적 가치를 구현한 인격체의 양성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 및 윤리감각을 함양한 구성원을 키워내는 데 복무해야 한다. 때문에 교양교육은 전공의 상이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지도하는 강좌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양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돋는 데 의사소통 교과의 목적이 있다. 박삼열 또한 “대학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인간의 양성과 교양을 갖춘 지성인의 양성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에 있”²⁾으며, “교양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개인의 형성과 가치를 발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의

교양 교육과정은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가르치는 전공교육과는 달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³⁾고 적절히 진단한 바 있다.

대학에서 개설하는 교양강좌 중에서도 교양필수 강좌는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실상 대학의 지향점을 제시해야 될 교양필수 강좌가 사회적 요구나 트렌드에 편승하는데 급급해 있음을 심심찮게 목도할 수 있다. 김현정 역시 대학의 전략 교과목으로서의 교양필수 강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교양은 학문을 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자 응용능력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 교양교육은 대학의 공통성 및 학과별 전문성을 두루 고려하여 기획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다수 대학에서 교양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의사소통 강좌의 경우, 학내 구성원의 근본적인 반성적 계기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여러 층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박정선의 평가처럼 “대학 ‘교양 교육(Liberal education)’의 일반적 목표는 다양한 지식의 습득, 사고력과 분석력,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데에 있다.”⁵⁾ 그러나 작금의 “대학 교양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이를 방황하는 시대적 미아(迷兒)가 되”⁶⁾었다.

대학 글쓰기는 교양의 본질을 구축하는 데 그 개설목적이 있으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이상론에 그치고 만다. 이는 “문화나 교양이란 것도 단지 문화상품으로 구매되어 비주얼한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면 그만이라는 새로운 풍조”⁷⁾ 탓이며 이러한 흐름에 맞장구치는 교육 정책의 한계라 볼 수

2) 박삼열, 「대학 교양과정과 글쓰기 교육」, 『철학논총』 62, 새한철학회, 2010, 120쪽.

3) 위의 논문, 118쪽.

4) 김현정,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의 본질과 영향」,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참조.

5) 박정선,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 『대학작문』 1, 대학작문학회, 2010, 115~116쪽.

6) 정희모, 「글쓰기」 과목의 목표 설정과 학습 방안, 『현대문학의 연구』 1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186쪽.

7) 김주언, 「교양 없는 시대의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258쪽.

있다. 중언하자면 교양교육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타자를 존중하며 인간적 덕목을 함양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그렇기에 전공을 불문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이나 지식은 일정한 노력을 통해 획득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는 비교적 장기적인 이해와 습득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대학 교양교육은 학문적 기초소양 함양과 더불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좌표를 정립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은 첫째, 인성 함양을 위한 성찰적 기회의 제공에 있다. 현행 입시제도에서 10대를 보낸 학생들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다. 산업화 이후 급진적 발전에 혈안이 되었던 우리 사회는 기술적 차원의 능력 함양이나 지식의 축적에 급급했다. 이로 인해 인간이 겸비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정한 오류를 감수하고 오늘의 사회적 혼돈의 원인을 진단하면, 인성의 아름다움 보다는 능력의 우수성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의 역할을 소거하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데 몰두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주체로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따르면,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문서표현능력 그리고 기초외국어능력 등으로 세분된다. 글쓰기는 기초외국어능력을 제외한 제반요소를 충족시키는 데 절대적 요건이다⁸⁾. 굳이 직무능력과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말/글을 통한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때문에 글쓰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골몰하는 강좌의 역할은 절실하다.

셋째,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며, 이때 글쓰기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이 된다. 글쓰기 교육은 기

8) NCS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cs.go.kr 참조

술적인 글쓰기 능력뿐 아니라 논증적 사유를 향상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글쓰기 등 의사소통 능력은 나와 나, 나와 타자, 나와 사회 등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돋는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글쓰기 교육을 위해 전공학과와 별도로 교양교육 전반을 책임지는 교양교육원 등과 같은 독자적인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대학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성행’하는 글쓰기 강좌는 대다수 대학에서 교양필수 강좌로 지정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실상 수요자와 공급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혹은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미중한 실정이다. 현재의 글쓰기 강좌의 지향점은 기존에 개설되었던 ‘대학국어’와는 확연히 다르다. 대학국어가 고등학교 국어교과의 연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인상이 짙었다면, 지금의 글쓰기 교육은 의사소통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 글쓰기 강의는 많은 문제에 직면에 있다. 이에 창원대학교의 사례를 들어 글쓰기 교육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와 실제 강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I.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⁹⁾

창원대학교의 글쓰기 교육이 처한 현실은 여타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 시수확보 등 상황이 열악한 편이다. 이는 대학 내 예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관학과인 국어국문학과의 다년간에 걸친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국어국문학과 소속 시간강사에 국한된 강사진 구성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여타의 학과에 비해 국어국문학과 소속 교수자가 글쓰기 분야와 보다 친숙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작문이나 대학국어와의 친연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글쓰기 교육이 의사

9) 본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8년 2학기까지의 창원대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글쓰기> 강좌가 처한 상황과 그 운영을 논의대상으로 한다.

소통 및 교양교육으로 확장되고 인문학적 사유를 토대로 전학문 및 사회
와의 통섭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여타 학과 교수자와의 연계가 절실하다.
소위 시간강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대학현실
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상 국어국문학
과 등 인문대에서 교양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 탓에 소속
시간강사의 시수확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국립대 강사료를 절
감하기 위해 주관학과 전임교수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교수지도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비전업 강사를 우선 추천해 달라는 학교측의 압력도 일조
한다고 볼 수 있다.

창원대학교는 명색이 종합대학이지만 전학과를 포괄하는 인문교양은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2016년 2학기 기준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필수 강좌는 크게 ‘대학생활의설계(1시수)’, ‘영어(2시수)’ 그리고 ‘글쓰
기(2시수)’에 국한되며, 그나마 ‘대학생활의설계’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은 메카트로닉스학과를 포함한 공과대학의 위상이 여타의 학
과보다 우세한 대학 및 지역적 특성과도 달아 있다. 공학인증제 시행학과
는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공학작문 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탓에 <글쓰기>
의무교육 대상학과에서 배제된다. 또한 2017년 1학기부터 두드러진 현상은
예술대학 및 특성화사업 참여 학과의 이탈이다. 이들 학과의 경우 <글쓰
기> 강좌를 교양필수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기에 교양필수로서의 <글쓰
기> 수업의 위상 및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마저도 2018년 1
학기부터는 교양선택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대학 스
스로 교양필수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을 반증한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
이다.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두 가지 정도로 범주화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에 의한 빈번한 교육과정 개편 등 강
의 개설 및 시수 운영과 같은 제도적 차원에 있어서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전학과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로서의

위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교양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 문제가 족쇄가 되어 강좌개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대학이 지향하는 인문적 가치 및 교양이 부재한 기업형 대학으로 전락할 위험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은 통섭으로서의 의사소통 교육의 실현을 어렵게 하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과 및 교수자 그리고 수혜자인 학생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둘째, <글쓰기> 강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는 산재해 있다. 예컨대 교재의 적합성이나 교양 강좌로서의 공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글쓰기> 단일 강좌가 의사소통 전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의 함양에 기여해야 하는 부담 및 한계 등도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에 제도적 차원의 문제와 실제 강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1. 제도적 차원의 문제

많은 대학에서 의사소통으로서의 글쓰기 강의가 교양필수로 정착되었으나, 강사법 시행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대학 교육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대학의 가치와 전략적 특이성을 지향하고자 했던 애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실상 글쓰기 교육과 더불어 교양교육은 늘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특히 학생과의 소통이 절실하나, 강제성을 띤 교양필수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개가 냉담하고 소극적이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양선택 강좌로 개설되는 경우에는 외면반기 일쑤다.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은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심리나 역할과 길항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현규의 적절한 지적처럼 “글쓰기를 위한 교육’ 보다는 ‘글쓰기를 통한 교육”¹⁰⁾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즉, 글쓰기 자체를 목적화 하지 않고 교양 및 전공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글쓰기를 유용한 학문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신현규, 「‘글쓰기’ 교양과목 교수 방법」, 『교양논총』 3, 중앙대 교양교육연구소, 2010, 94쪽.

[표1] 창원대학교 <글쓰기>강좌의 교육과정 개편

2006~2016년	2017년	2018년
공통교양(교양필수) 기초교양-공통기초 글쓰기(2시수)	교양필수 이수 학과의 이탈 계열별 글쓰기(3시수)	교양영역-글로벌 의사소통 교양선택 계열별 글쓰기(3시수)

제도적 차원의 한계 및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개발 및 운영의 지속성 문제다. 아울러 이로 인해 강의 개설 및 시수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역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봉률 역시 “전공교육은 전문성의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시기에 집착된 최고의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양교육은 그 시대적 가치에 따라 그 시대의 위기를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에 비해 소홀히 되는 만큼이나 시대에 따라 민감하게 개혁의 대상이 된다.”¹¹⁾고 지적한 바 있다.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원대학교 <글쓰기> 강의는 2006년 공통교양(교양필수)으로 개설된 이후 2016년까지는 2학점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2017년부터는 계열별 지도에 적합하도록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글쓰기와 같이 3학점 <계열별글쓰기>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교양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학과들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2018년부터는 교양영역-글로벌 의사소통의 일환 즉, 교양선택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교과 개편 과정은 강좌의 자생력을 파괴할 뿐 아니라, <글쓰기> 강좌가 교양필수로 지정되기 이전의 교양선택으로서의 <바른 글쓰기>로 귀환한, 일종의 퇴보로 독해할 수 있겠다.

특히 강의개설 및 시수운영의 문제는 창원대학교만 겪는 어려움은 아니다. 인문 교양에 대한 대학 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2학점에서 6학점 정도로 배정된 글쓰기 및 말하기 강좌를 이수해야 한다.¹²⁾ 이러한 의사소통

11) 김봉률, 「‘가치와 표현’ 교육으로서 융복합교양교육론과 그 사례」, 『추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18쪽.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도 다양하다. 혹자는 창의성에 기대 자신의 ‘글 짤’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반대로 같은 이유로 수업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을 강하게 표방하기도 한다. 또한 고학년일수록 자기소개서나 보고서작성법 혹은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기법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을 기대한다. 내지는 대학 3, 4학년이 되어서야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 강좌는 주로 1학년 때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글쓰기 교육의 학습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수강학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글쓰기 기초와 학술보고서 작성법 등에 치중하게 되고, 2학년 이상 또는 계열별 글쓰기 지도로 개설될 때에는 실용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된다. 문제는 단일 강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창원대학교의 상황에서는 제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창원대학교 <글쓰기> 강좌가 당면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실효성 있는 의사소통 수업 구성을 지연시키고 글쓰기 기초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2016년까지는 학과 및 전공 구분 없는 설강으로 교수자가 계열별 지도를 고려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계열별 글쓰기의 문제는 교양교육이 선취해야 할 보편적 이상 혹은 그 공통성과 자주 대립한다. 이는 복수 강좌 개설을 통해 심화글쓰기로서의 성격과 공통글쓰기로서의 성격을 각각 지도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그 역할을 배분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확충 문제이다. 인문학 분야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전임교수까지 시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대학의 상황에, 강사법 시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터라 대학측의 꼼수 가 이러한 상황을 보다 악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즉 2019년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강사법에 대한 각 대학의 선제적 대응은 시간강사

12) 부산대학교의 경우 2016년 2학기까지 교양필수 의사소통 강좌로 <창의적사고와글쓰기>와 <열린 생각과말하기>(각 1시수) 두 강좌를 모두 이수했던 것을, 2017년 1학기부터 <열린사고와표현>(2 시수, 30명 정원)으로 통합 개편하였다. 또한 <고전읽기와토론> 수업과 더불어 읽기-쓰기-말하기 등 글쓰기뿐만 아니라 리터러시literacy 간 통섭적 강좌를 병행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 박탈로 가시화 되고 있다. 예컨대 동아대학교의 경우 독서와 토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강좌로서 <계열별명저읽기와세미나> 수업을 2018년 1학기부터 전학과로 확대하여 교양필수로 지정했으나, 2019년 1학기부터는 선택강좌로 조정하는 등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인제대학교 역시 오랜 기간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담당했던 <언어와표현> <논리와사고> 등의 교양필수 강좌를 2019년 1학기부터 교양선택으로 축소하였다. 그간 일정한 교육목표 등 지향점을 토대로 개발·운영된 의사소통 강좌를 단시간 내에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의 촌극은 교육의 본질을 위배한 자본지상주의가 빚은 것이다. 실제로 해당 대학교에서는 3분의2 정도의 시간강사들이 통보도 없이 해촉되었다. 시간강사의 처우가 언제든지 “처분 가능한”¹³⁾ 노동자로 내몰린 지금의 현실은 대학의 본질을 잃고 좌초하는 대학의 현 상황을 적시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문학 전공 시간강사의 경우 학위를 받더라도 전공과목을 담당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전공 보다는 교양교육으로의 교수자 이전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양교육을 위한 교수법을 숙지하지 못한 초보 교수자의 범람을 방지하도록 종용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연구 영역과 강의지도 영역의 상이로 일정한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전술했듯이 학과 전임교수의 교양 담당시수를 늘리거나 비전업 강사의 우선 추천 등의 방편을 앞세운 행정적 폭력은 전업 시간강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스스로 교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강좌 등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나 강의전담 교수자를 채용하고 있는 여타 대학의 추세와 달리 창원대학교의 경우, 글쓰기 강좌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관학과인 국어국문학과 전임교수가 책임교수로서 이중의 업무 부담을 안고 있으며, 첨삭조교 등 보조인력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개설 규모

13) 주디스 베틀러 ·아테나 아타나시오우, 김용산 옮김, 『박탈』, 자음과모음, 2016, 306쪽.

를 축소한 것과 연동된 문제이기도 하다. 교수자 한 명이 한 강좌를 담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개설 분반이 적은 상황, 즉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이전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2016년 1, 2학기 각각 20분반에 미치지 못하는 분반을 설강했으며, 3학점 3시수 확보 및 계열별 글쓰기가 시행된 2017년 1학기 역시 18분반(35명 정원, 평균기준은 30명 이하) 개설에 그친다. 또한 교양선택으로 전환된 2018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 설강조차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충원을 기대하기란 요원해 보인다. 이처럼 예산과 이해관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풍전등화 상황에 놓인 교양교육의 실상을 통해서 백년대계로서의 교육의 위상이 붕괴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이처럼 대학 교양교육은 각 대학의 제도적 구조가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교양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 구성원 간의 노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서남수는 “교양교육의 미래는 곧 한국 대학의 미래다. 우리 대학 교육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양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교양교육의 문제가 변방적 주제로 밀려난 것은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학사 구조, 교수 인사와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 대학서열 구조 등등 우리 대학의 진취적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첨첩의 구조적 장벽들 때문이”¹⁴⁾라고 적확하게 분석한 바 있다. 구조적 장벽, 곧 문제의 중층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교양교육 계획을 모색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강좌 운영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제 강좌 운영의 문제

다음으로 실제 창원대학교 <글쓰기> 강좌 운영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자기 견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14) 서남수,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4(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2쪽.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양강좌로서의 공통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재는 2006년 공통교양으로 개설될 당시 간행된 2006년 초판본 이후, 2009년 『생각하는 글쓰기』 개정판을 출간하여 2016년 2학기까지 사용되었다. 이후 2017년 계열별글쓰기에 적합한 교재를 편찬함으로써 그간의 교재가 안고 있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2018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지속적인 교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탓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¹⁵⁾ 기술발전의 진보나 정보 및 지식의 급변 등을 고려한다면 교재 개정 및 편찬의 문제는 중대하다. 이들 교재의 경우 글쓰기의 중요성을 전제로 완결된 글을 쓰기 위한 단계별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재의 방향성은 뚜렷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대학신입생에 걸맞은 읽기자료의 수록이나 대학보고서 작성법 등 그 실용성 문제 역시 타진해 보아야 한다. 지나치게 초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지, 또한 “어느 영역에서나 필요로 하는 ‘보통’능력을 기르는”¹⁶⁾ 데 적합한지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다.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재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이 변모 및 개선되었다.

[표2] 교재 개편에 따른 내용 구성1

[1차 교재 : 2006년]	[2차 교재 : 2009년]
1. 글쓰기의 기초	1. 글쓰기의 기초
2. 글쓰기의 방법	2. 글의 계획과 조직
3. 바른 문장 쓰기	3. 글의 구성
4. 다양한 글쓰기	4. 문단 쓰기
<부록1> 상호 첨삭하기	5. 서두 쓰기와 결말 쓰기
<부록2> 자주 틀리는 맞춤법	6. 바른 문장 쓰기 <부록> 자주 틀리는 맞춤법

15) ACE 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의 일환으로 <계열별 글쓰기>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2015년부터 교재개발 및 시수확보 등을 위해 주관학과인 국어국 문학과 소속 전임교수들이 분투하였다. 그 성과로 2017년 1학기부터 3학점제로 운영되었으며, 교재 역시 계열별 지도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 및 보완, 재편찬되었다. 다만 ACE사업선정(2015~2018) 등 예산확보에 따른 일회적 차원에 그칠 공산이 크기에 장기적인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설정이다.

16) 손동현, 「교양교육의 지렛대, trivium교육의 전통」, 『2015 하계 워크숍 자료집』, 부산대 교양교육원, 2015.8.20, 10쪽.

[표3] 교재 개편에 따른 내용 구성2

[3차 계열별글쓰기 : 2017/2018년]	
1부 글쓰기의 기초 1. 글쓰기의 이해 2. 내용 생성하기 3. 내용 조직하기 4. 문단 쓰기 5. 고쳐쓰기 6. 문장 쓰기	2부 글쓰기의 실제 7. 자기소개서 쓰기 8. 계열별 에세이 쓰기(1) 9. 계열별 에세이 쓰기(2) 10. 계열별 에세이 쓰기(3)

시중에는 대학교재 외에도 국내·외 각종 의사소통 서적이 출간되어 있다. 교수자가 여러 참고문헌을 더하여 강의안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교재의 역할은 중요하다. 교재의 대략적인 목차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강의 개설 초기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수업목표와 방향성이 명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표2]의 2차 교재는 1차 교재의 내용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쓰기 위한 단계별 지도에 집중했으며, [표3]의 3차 교재부터는 계열별 지도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글쓰기 등 계열별로 3권으로 발간되었던 것을 2018년부터는 『계열별글쓰기』 한 권으로 묶어서 간행하였으나 구성 및 내용은 동일하다. 3차 교재의 경우, 글쓰기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탓에 대학 교양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심화 학습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던 이전 교재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애쓴 것으로 보인다. 즉 교양교육의 이상이나 단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개발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차 교재 머리말에는 “가급적 추상적이고 무거운 문장 이론은 피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글쓰기는 진지한 이론의 고뇌가 아니라 즐거운 실천의 놀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재 구성 취지에 공감하는 바 있으나, 글쓰기가 즐거운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사유의 깊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거운 문장이론이나 여타의 원론적 지식에 갇히기 보다는 시대와 자신을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진지한 고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유의 깊이를 견인할 수 있는 양질의 읽기자료를 수록하거나 참조자료

목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3차 교재의 개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2차 교재에서는 자료의 활용이나 글쓰기 윤리 교육에 대한 내용 구성이 부재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창작물 등 저작권에 대한 이해 및 그 인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학문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재 및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3차 교재 개편을 통해서 인용법이나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어 그 경각심을 고취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물론 학문 분야마다 다양한 주석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학문 공통으로 쓰이는 작성법을 중심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이한 학문분야에서 적용되는 주석작성법 등의 차이를 학습함으로써 타학문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글쓰기 등 학문윤리를 토대로 적절한 인용법을 숙지하고 이를 통해서 자유와 표현의 심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일 강좌 개설로 <글쓰기>가 전체 의사소통 강좌의 역할을 전담하는 데서 한계가 발생한다. 실제로 고등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학습을 대학에서 전담하다보니, 대학 전공교육과의 이질성이 강할 뿐 아니라 실제 대학 교양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심화글쓰기 운영을 어렵게 한다. 대학교육과 고등교육의 간극은 크다. 이때의 간극이란 객관식 문항에 익숙한 고등교육과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야 하는 대학교육 간의 격차이며 주로 학점 부여와 같은 평가방식과 수업방식에서 발생한다. 수동적 교육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니 대다수 학생들은 난감해 한다. 글쓰기 교육은 더욱 그렇다. 다양한 형태의 표현법은 이미 습득하고 대학교육에 임해야 하지만 우리 교육제도의 실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글쓰기 기초에 치중한 교육 상황에서 냉철한 자기분석과 비판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한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터러시의 통합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복수 강좌의 개설이 절실하다. 예컨대 글쓰기 기초와 더불어 심화글쓰기를 개설하거나¹⁷⁾ 다양한 리터러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대학이 도입하고 있는 것

처럼 독서와 토론 등의 강좌를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거의 유일한 리터러시 강좌였던 글쓰기 수업마저 축소한 창원대학교의 상황은 교육의 목적이나 그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반문케 한다.

셋째, 교양필수로서의 글쓰기 교육의 위상을 복원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공교육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학내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구축해야 한다.¹⁸⁾ 이상우·안미애가 경북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사례를 들어 지적했듯이,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쓰기’라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만 두어서는 <글쓰기>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 글쓰기 교육을 ‘쓰기 능력의 전이성’을 중심으로 제고해야” 하며, “글쓰기 교육에서 ‘전이성’이 확보된다면,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논란의 핵심인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¹⁹⁾고 본다. 예컨대 계열별 글쓰기의 강화 및 전공과의 연계성 강화가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교내 서평 대회 및 토론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대학생활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글쓰기 교육의 실용성 및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이러한 가시적 성취는

-
- 17)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글쓰기>가 개설되나 역시 교양선택의 일환으로 한두 분반 설강에 그치며 이마저도 폐강이 잦다.
- 18) 이영석의 진단처럼 “교양교육을 통한 대사회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연계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이영석, 「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교양 교육의 전망」, 『인문연구』 49,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17쪽 참조.
- 19) 이상우·안미애, 「계열별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변화와 발전 방향 연구」, 『문화와융합』 38,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41쪽.
- 20) 부산대학교는 교양필수 강좌를 매년 2학기에 시행되는 교내 독서토론회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생활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칼 포페식 토론회형을 변형한 대학 내 토론회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교과 영역과 비교과를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다만 교내 독서토론회와의 전이성에 골몰한 나머지 <열린사고와표현> 등의 교재 구성 역시 글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지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읽기자료를 통한 사유의 확장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종래의 의사소통 교육이 글쓰기 교육에서 축발되었으나 읽기-사유-토론 등 여타의 리터러시와의 연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착목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교양필수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적은 창원대학교의 경우 3시수 <계열별 글쓰기> 강좌만 수강하던 것을 이조차도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과가 부재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교과의 축소 및 폐지는 비교과의 존재이유뿐 아니라 그 전이성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양 담당자 및 대학제도 전반에 새로운 동기부여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양교육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IV. 개선방향 및 제언

창원대학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무력하다. 그간의 강좌 운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애썼던 구성원들의 자구책은 그 실효성 여하를 검증하기도 전에 무위에 그쳐버린 탓이다. 일회적 예산에 기댄 교양교육의 설계 및 강사법 시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교양교육 개편은 대학교육의 본질에 대해 반문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제이다. 교육과정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교과 개편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이다. 실제로 창원대학교뿐 아니라 대학 교양교육의 다양한 문제상황은 제도로부터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의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의 일방적인 교육과정 개편 및 축소로 인해 교육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의 글쓰기 강좌 축소는 의사소통 강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성과도 배치된다. 글쓰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토론 등 말하기로의 확장 및 보다 세부적인 글쓰기 강좌를 병행·운영하고 있는 추세와도 위배된다. 결국 예산문제로 귀환한다. 가령 창원대학교는 글쓰기 비교과의 일환으로 <글쓰기도움터>를 운영하다가 2015년부터는 <글쓰기클리닉>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때 튜터링 운영과 관련한 소속이 2014년에는 링크LINC사업단이었다면 이후에는 에이스ACE사업단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튜터링 제도는 각 대학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의 확보 여하에 따라 그 지속성을 미지수인 상황이다.²¹⁾

개선방향 모색을 대신하여 제언하자면, 우선 대학은 대학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창원대학교의 경우 교양교육에 무신 경한 제도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유일한 의사소통 강좌인 <글쓰기>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 교육 전반과 연계될 수 있는 맞춤형 <글쓰기>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책임감 있는 교육개편을 통해서 일정한 교육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리터러시 수업의 축소가 아니라 교양필수로서의 글쓰기 교육의 위상을 회복·강화하고 글쓰기 기초를 기본이수(1-2시수) 강좌로 개설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화과정(2-3시수)을 개설해야 한다. 자기표현 능력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으며, 표현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기술적 차원에서의 실용적 교육을 원하는 경우, 창의적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 내지는 학과 전공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학술적 글쓰기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이수 강좌와 심화 강좌를 교양필수로 배치하고, 전자는 신입생 이수 강좌로, 후자는 2학년 이상 이수 강좌로 구분하여 개설해야 한

21) 글쓰기센터 운영과 예산의 문제는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서강대학교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2017년 프라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인제대학교 글쓰기클리닉 '인문교양 글쓰기'에서는 학생들의 인문교양 함양과 글쓰기 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심층 글쓰기 상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교육방법개발을 위해 2017년 7월 20~21일 양일 간 국내 대학 내 글쓰기센터 및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서강대 글쓰기센터는 2011년 설립된 이래 상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당시 센터장을 중심으로 연구교수 1명, 국·영문 연구원 1명씩, 그리고 국문튜터 10명, 영문튜터 5명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ACE사업으로 운영되는 서강대 글쓰기센터의 대략적 예산은 아래와 같이 그 규모가 크다 보니, ACE사업 종료 이후 예산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렇듯 대학 내 비교과 운영 및 교과와의 연계성, 그리고 지속성 등을 글쓰기센터의 실효성이 아닌 온전히 예산 확보 여하에 그 운명이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CE사업 예산 : 14억	
글쓰기센터 연간 운영 예산 : 20% 책정(2억 8천 정도)	
연구교수 및 연구원 인건비	연구교수 1명 : 연봉 4500 연구원 2명 : 연봉 3000(×2)
홈페이지 운영(유지, 보수)	연간 1500만원
WAC 예산	강좌당 50만원 × 80강좌 = 4000만원
튜터링 지도비	대략 8~9000만원 (시간당 12,000)

다. 이는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본질과 글쓰기 교육의 실용성을 두루 만족 시킬 수 있는 일방안이 되리라 여겨진다.

중언컨대 교양교육을 설계하는 데는 장기적인 안목과 운영의 지속성, 더불어 운영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학이 교양교육의 가치를 통감하고 이에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때 지속가능한 의사소통 강좌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강좌 운영상의 문제 역시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원대학교의 경우처럼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들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제도적인 상황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대학의 가치와 교육 방향성의 사표로서의 교양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자본의 논리에 기댄 졸업시수 축소 및 교양필수 강좌의 일방적인 폐지·축소 등은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고 대학의 위상 또한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자각·통감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대학이 산업으로 변질된 시대, 인문교육의 가능성은 요원해져 버린 것 일까.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학은 기업 보다 더 기업적인 마인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학의 가치 및 존엄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에 대학의 뼈아픈 성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자발적 필요와 요구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원금에 볼모가 된 일방적 통보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은 되레 대학의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진중권의 지적처럼 교육은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과 ‘교양’이라는 두 가지 이상을 모두 고루 지향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교양은 나를 위한 거고 노동력 재생산은 사회를 위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상상력 경쟁을 하는데 대학 운영자들은 기술 경쟁”²²⁾에 몰두한 나머지 인문학 등 상상력의 근원을 원천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대

22) 김창인, 『괴물이 된 대학』, 시대의창, 2015, 85쪽.

학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육은 크게 제도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전자의 경우, 첫째 교육과정 개편 및 강의 개설과 시수 운영상의 문제, 둘째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부재 등으로 간취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첫째 교재의 적합성 및 강좌의 공통성 문제, 둘째 단일 강좌 개설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 끝으로 전공 및 비교과 등 대학생활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특히 글쓰기 등 의사소통 강좌를 통해서 대학의 가치와 지향점을 지켜나가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책무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대학이 고수해야 할 덕목에 충실한다면 교양교육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창원대학교 <글쓰기> 교육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국내 각 대학이 예산 문제를 떠나,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전환 및 성찰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늙어가는 사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 책정에 의해 구색만 갖춘 교양교육이 아니라 대학의 정체성 확보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 운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봉률, 「가치와 표현’ 교육으로서 융복합교양교육론과 그 사례」, 『추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 김주언, 「교양 없는 시대의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 김창인, 『괴물이 된 대학』, 시대의창, 2015.
- 김현정,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과의 본질과 영향」,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 박삼열, 「대학 교양과정과 글쓰기 교육」, 『철학논총』 62, 새한철학회, 2010.
- 박정선,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진로」, 『대학작문』 1, 대학작문학회, 2010.
- 서남수,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구조적 난점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4(2), 한국교양교육학회, 2010.
- 손동현, 「교양교육의 지렛대, trivium교육의 전통」, 『2015 하계 워크숍 자료집』, 부산대 교양교육원, 2015.
- 신현규, 「‘글쓰기’ 교양과목 교수 방법」, 『교양논총』 3, 중앙대 교양교육연구소, 2010.
- 이상옥·안미애, 「계열별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변화와 발전 방향 연구」, 『문화와융합』 38,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 이영석, 「대학 교육의 대중화와 교양 교육의 전망」, 『인문연구』 49,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 정희모, 「‘글쓰기’ 과목의 목표 설정과 학습 방안」, 『현대문학의 연구』 1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 주디스 버틀러 ·아테나 아타나시오우, 김웅산 옮김, 『박탈』, 자음과모음, 2016.

<Abs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 of writing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education
- Centering 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Writing>

Jo, Chun-hee

It is an old thing that the university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logic of capital. This not only changes the goals and responsibilities that colleges pursue, but also affects the presence of members in the campus. The essence of college is to study various disciplines. Liberal education not only meets individual academic needs, but also serves to nurture the talents needed in each field of society. However, academic purity under neoliberalism has become a benchmark, and the voice of self-confidence about the necessity of meeting and reflection on the nature and role of the university is growing.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writing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liberal arts education in this age,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in the case of Changwon University's writing class. To summarize, Changwon University's <writing> education has problems in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level and actual operational problems.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can be seen as a problem in the opening of the first lecture and in the operation of the lecture, and second, the absence of the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auxiliary manpower. In the latter case, there is the problem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osition and replacement timing of the textbooks, the lack of

education on writing ethics, the problem of efficiency reduction due to the opening of a single lecture, and the strengthening of connection with major and college life.

Such a problem is not a special situation confined to Changwon University's writing education. Each university in Korea should leave the budget problem and introduce a reflection and reflection on the liberal arts education with a longer term perspective.

Key words : university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writing education, Changwon university, communication education

조춘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47723)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120, 102동 501호(온천동 대동다숲)

전자우편: champoet@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3월 13일 투고되어 2019년 4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